

인도 음주문화의 형성과 음주문제 대책



조 성 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연구개발본부장)

■ 목 차 ■

1. 술이 인도에서 악명이 높은 이유
2. 인도 고대사속의 술
3. 8세기 이후 음주에 대한 재해석
4. 이슬람이 인도인의 음주에 미친 영향
5. 영국의 지배와 인도의 독립
6. 인도인의 음주문화란 어떠한 것인가?
7. 인도인의 음주패턴 변화
8. 급변하고 있는 인도의 음주문화
9. 인도에서 벌어지는 음주 찬반논쟁

1. 술이 인도에서 악명이 높은 이유

모든 문화는 주류소비를 선호하거나 배타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즉, 음주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배타적인 문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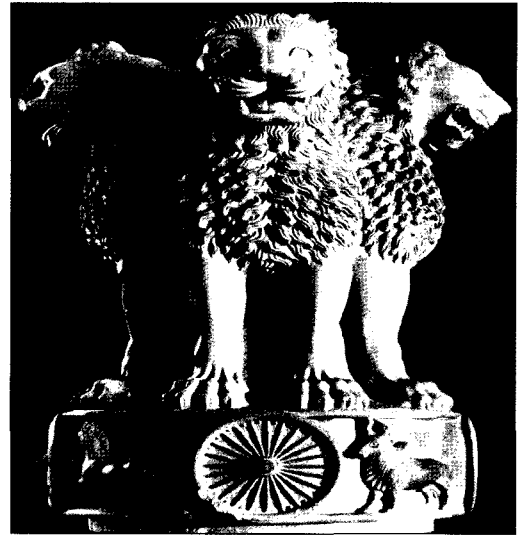
이슬람교도나 금욕적인 기독교도들은 음주를 금지한다. 영어권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의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 한편 술에 취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즉 그들은 술에 대해 이중적 입장을 취한다.

유태인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적당한 음주는 허용하지만 과음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한다. 우리나라나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허용적이며, 일정한 정황 하에서 만취하는 것을 별다른 문제없이 받아들인다.

인도의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인도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 대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보자. “인도에 유심론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시 “인도에 유물론이 있는가?”라고 물어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른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인도인들은 알코올도수가 낮은 맥주를 즐겨 마신다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왕이 건립한 사자상

도 인도에서는 대답이 대체로 다 "그렇다" 이다.

완전히 금주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허용적인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인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존이 이중적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인도는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하였고 음주문화도 따라서 크게 변화했다. 어느 사회든지 변화는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독립 후 인도사회에는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도입되었고 마르크스식 사회주의가 새로운 인도사회를 기획하는데 주축을 차지하였다. 정부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온정주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개발 5개년의 계획이 지속되었고 대규모의 산업화와 농업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식량생산량이 3배나 뛰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산업의 인프라도 점점 더 다원화 되었다. 이에 내부갈등이 여러 분야에서 불거졌고, 변화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졌다.

인도사회의 특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우 다양한 집단이나 관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원전 3세기 마누(Manu)가 입법한 사회구조가 아직도 강력하게 현존한다는 것이다. 마누가 구분한 카스트는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의 원천이자 장애로서 엄연히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삶과 사회에 대한 고대 인도의 관념이 요즈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인도 사회의 변화과정은 산스크리트화(Sanskritisation)으로 명명된다. 인도에 계급변화에 유동성이 들어가자 하층 카스트의 사람들은 상층 카스트의 규범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즉, 카스트 간의 동질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도시거주 불가촉천민들의 현대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구식 생활양식이 보급되었고 상품구입과 소비증대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 후 반세기가 지난 현대의 인도에 있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화유산은 흔들려 버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인도 사회의 갈등과 변화는 인도인이 알코올을 비

룩한 향정신성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영향을 그대로 미쳤다. 농업발전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술을 만들어 마시거나 사서 마실 수 있으므로 마리화나나 아편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에서 보면 알코올은 다른 중독성 물질인 마리화나나 아편의 대체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정에서도 술을 제조하고, 상업용 주류제조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독한 증류주가 생산되자 새로운 소비자 층을 만들어 졌고, 예전에 술을 안 시던 도시민들을 유혹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이 증가되자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나 가속화 되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정 내 양조나 증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과학적인 이유를 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서구적 생활양식이 도입되고 소비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나 태도상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술은 1940년대 이래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었다. 그러한 현상은 1970년 이후에 더욱 더 두드러졌다.

인도의 전체 알코올 생산량 중에 술의 비중은 1951년-1955년 사이에 2.07% 정도였다. 1980년대 말에 이 숫자는 42.14%까지 증가했

다. 증가율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에서 지속되었지만 가히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평가가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지방의 지역정당들이 시작하던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인도의 국민의회파는 이 당시 많은 주에서 지지세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인도에 정치적으로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변혁의 상태변화와 술의 소비량증가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알코올을 유통이 쉽게 가능한 형태로 생산할 것인가를 검토하던 시기인 1966년 경 인도의 연방정부에서는 알코올 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하였다. 인도헌법에 "주정부는 국민의 영양상태와 생활수준, 공중보건의 향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의학적인 목적을 예외로 건강을 유해하게 하는 술과 약물들의 소비를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주정부에서 잘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알코올과 약물에 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인도 뿐이 아닌가 한다.



인도에서는 낙타와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모두 중요한 탈 것으로 사용된다



카주라호 사원의 관능적인 미녀군상, 음주를 칭송하는 인도 밀교의 상징적 조각

2. 인도 고대사 속의 술

인도사 속에서 알코올에 대한 입장을 알아 보려면 힌두이즘과 같은 인도종교들과 이슬람, 영국의 지배의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힌두교에서는 항상 알코올에 대해 금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한 입장은 종교적 설화 '뿌라나(Puranas)'와 '경전(Suturas)'들에 잘 나타나 있다. '뿌라나'에서는 우주의 창조와 파괴, 신들과 성인들의 계보, 인도인의 시조와 왕조들의 역사,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금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술이 가법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인도신화를 보면 세상에 음식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신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주(神酒)였다. 신의 입에서 떨어지자 세상에 물이 탄생되었다. 술과 물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이 명상을 하러 떠날 때 딸에게 두개의 항아리를 주고 떠난다. 그 중 한 항아리에 들은 것은 술이었고, 다른 항아리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신은 인간에게 술과 독을 주고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그 중 인간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인도의 신화를 두루 살펴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도신화에도 술이 엄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한다.

소마(Soma)와 수라(Sura)는 기원전 2000년 경의 인도고대사에 자주 등장하는 음료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류를 통칭하는 '술'과 발음이 아주 비슷한 '수라'를 고대 인도의 문헌에

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고유명사가 인도의 고대어와 유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또한 결코 생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소마'를 마시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오고, 깨어나며, 평온하게 되며, 도취하는 상태가 되고, 몸과 마음이 자극되었다고 한다. 소마의 원료는 버섯이었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마실 수 있었고, 가격이 매겨지지 않을 정도로 비쌌고, 매우 귀중했다고 한다. 그러니 일반적인 축제에 나타날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음료였음을 알 수 있다.

'수라'는 쌀, 당밀, 마후와 나무의 꽃으로 생산된 강한 맥주였다고 한다. 고대인도에서는 주로 켄트리아 계급의 전사들이 전투의 상징 중 하나로 마셨다고 한다. 또한 남부의 드라비다 원주민들이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 중 일부는 발효시킨 '이라'와 '마수라'를 마셨다고 전해져 온다. 그것들을 마시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취한 상태를 그대로 겪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고대나 현대의 인도인들이 취하는 물질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즐겼다고 볼 수 있다. 고대로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것 자체는 인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인도의 유명한 양대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서도 음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라마야나에서 음주는 흑백 또는 선악으로 가르는 기준으로 묘사되고 있다. 나쁜 사람들은 술과 고기를 먹고, 좋은 사람들은 금욕적인 채식주의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마하바라타'는 '판다우스'와 '카우라바스'가 북쪽의 땅을 놓고 싸우는 이야기이다.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인물들은 단순히 흑백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취중에 전쟁을 일으켜 왕조가 붕괴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술을 마시고 엉망진창이 된 역사를 그리는 것

은 인도사에서도 예외 없이 확인된다.

베다 이후의 시대에도 '수라'는 특별히 전 시 중에 전사계급에게 허용되었다고 한다. 술은 통치자들이나 궁정 속의 신하들에게만 관계되는 일이었다.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에 해당하는 수트라(Sutra)시대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독한 알코올 음료가 접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베다시대와 베다 이후 시대의 음주는 의식 속에서의 음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음주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취한다는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금주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브라만들에게는 술 뿐 아니라 어떠한 취하는 물질도 금지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끄샤트리야, 바이시아, 수드라와 같은 다른 카스트들에게는 음주가 허용되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종교적으로 순수한 상태에는 도달할 수 있는가 여부는 음주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일은 금주를 하는 브라만에게 만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기원전 6세기 경 힌두교의 본류에서 벗어나 불교가 탄생하였다. 불교는 사회개혁운동으로

서 동남아시아로 번져갔다. 그 시대에 술로 인한 폐해가 벌써 인도에 나타났고 그러한 경험이 새로운 종교에 금주라는 계율을 낳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불교는 승려들과 사원에서 금주를 계율로 하였다. 기원전 185년에 아쇼카 왕은 인도에 불교를 확장시켰고, 따라서 금주가 기본적인 교리 중 하나가 되었다. 1920년에서 1947년 사이에 벌어진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비폭력의 메시지였던 아힘사(Ahimsa)도 불교의 교리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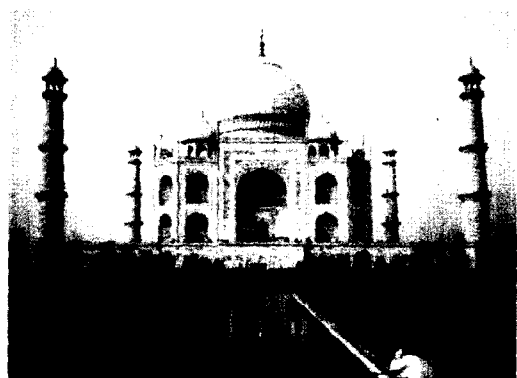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절에서 전매사업으로 술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여 재원을 충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전매사업을 담당한 승려들에게 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고 술 문제를 잉태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각국의 사회문화와 제도에 따라 불교의 근본 교리와 배치되는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3. 8세기 이후 음주에 대한 재해석

8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힌두교의 시대였다. 그 시대에는 정통 베다의 관점과



5세기경 북인도의 불타, 금주계율의 상징이기도 하다



인도 이슬람건축의 상징, 왕비 문타즈마할의 묘

그 이후에 발흥한 불교와 자이나교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도한 시기였다. 이른바 인도인들 사이에 종합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때 인도사회의 상당한 부분에서 술 소비가 일반화된 것을 보면 인도인의 전통이 일부 음주에서 일부 금주로 전환되는 시기가 시작된 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도의 가정에서 술을 만들었는데 주로 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였다. 당시의 이야기 책인 수크란티사라(Sukrantisara)에는 와인을 발효하는 기술이 자세히 적혀있다고 한다. 그 당시까지는 전사집단에게 음주가 허용적이었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심지어는 축제를 할 때에 여성에게도 음주가 허용되었다고 한다.

인도에서 음주는 처음에는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었다가 일반인들에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술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마시는 것이었다.

4. 이슬람이 인도인의 음주에 미친 영향

그 후 이슬람교도들이 수차례 인도를 침입한 후에 국가를 설립했다. 침입의 1차적인 목표는 물론 부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슬람의 여러 부족들이 침입을 시도했지만 인도에 정착하여 제국을 건설한 종족은 페르시아에서 온 무굴족이었다. 무굴왕조는 인도에 이슬람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가져왔다. 페르시아어가 궁중의 문자로 사용되었고, 오랫동안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된 것이 이 때의 일이었다.

술에 대한 무굴왕조의 입장은 최초에는 매우 엄격하였지만 차츰 와인은 궁중생활의 일부로 긍정적주자들과 귀족들이 음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시를 읽어보면 음주의 덕을 칭송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코란에서 음주를 반대하는 것과 이러한 현실은 달레마가



무굴왕조 악바르대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통합 발전시켰다

되었다. 이슬람도 인도에서는 인도의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으로의 강력한 전환력에 대응하여 힌두사회는 점차 내향적이 되어갔다. 그리고 술에 대한 행동과 태도는 베다나 베다 후 시대의 규약을 엄격하게 따랐다. 내향적으로 변한 힌두사회에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관습이 생겼다. 조혼이나 여아살해와 같은 풍습은 이슬람이 왕조를 설립하기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에 대한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태도는 술 마시는 일에 대해 금주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5. 영국의 지배와 인도의 독립

인도에서 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중

대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영국의 식민통치였다. 식민지 정부는 수입비용을 낮추고자 인도 내에 주류제조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가 설립되자 인도국민의회는 정부가 취하는 사람과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은 '인도절제위원회'를 1905년에 설치하고 조세를 통해 주류소비를 통제하는 정책을 개발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병입된 술에 대한 조세의 수준을 정기적인 음주자들을 줄이고, 새로운 음주자들이 가격 때문에 음주를 꺼리도록 하는 수준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물론 그 위원회가 가정한 것은 주세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조세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조세수입을 낮추지는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알코올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통제원리는 이렇게 만들어 졌고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도 내의 여러 연합세력이 독립투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주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인도국민의회를 지지했다. 이는 인도에서도 미국과 다름없이 정치적인 운동과 금주세력들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를 반대하는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로부터 힘을 받았다. 그들은 대체로 서구에서 진행된 절주나 금주 활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알코올과 독립이라는 과제를 연결하는 일은 그러한 운동의 광범위한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이 낮은 카스트를 알코올 문제 대처활동과 독립운동에 등장시켰다. 낮은 카스트는 음주가 허용된 계급이었고, 여성은 자유를 찾는 투쟁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지만 지도층에 의해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동에 포

합되었다. 여성들은 주로 피켓을 들고 나서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임시방편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러한 연합세력은 갈수록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 절주운동이 일어났던 초기의 광경과 같았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운동이 결국에 가서 금주법을 통과시켰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인도에서는 예전에 절주운동과 같은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운동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했다. 결국 이러한 운동은 금주를 헌법에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도헌법에 금주가 나타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었다.

인도는 1차 세계대전에 기꺼이 참전하였다. 참전은 전후에 인도가 독립을 담보로 자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영국정부와 양해사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도인들이 술을 마실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이 음주습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군인 특별상점에서 현역병사에게나 은퇴한 병사에게 정부보조 가격으로 술을 팔았고, 지금도 그러한 관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음주규범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인도행정청(Indian Civil Service)'에 인도인들이 취직을 하게 되자 서구식 교육받은 높은 카스트의 인도인들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짬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이 때 알코올은 통치자들과 동일시되는 신분의 상징으로 둔갑을 했다.

베다시대에 궁정에서 사용되는 술이 이제 지배자들과 그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의 상징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영국지배의 상징인 행정청의 관리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 영국에

유학한 왕족들 등 인도인들은 전시 중이나 여가를 즐기는 시간에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인도군은 더 이동지역이 넓었다. 아시아나 유럽에서 인도군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거기에서 인도군의 병사들은 알코올을 많이 접했고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인도인들의 음주문화를 변화시켜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35년에 지방자치가 허용되었다. 정치적인 대화가 계속 진행되었고, 국회는 연방의 모든 주에서 금주를 입법하였다.

독립 후 인도에서는 헌법 47조의 금주조항을 설치하도록 시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알코올에 대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일로 되었고 각 주정부는 자신들의 법을 만들었다. 인도국민의회는 독립이후 즉시 연방과 각 지방에서 집권을 했다. 이제 연방과 주정부는 술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51년까지 봄베이정부와 마드라스 정부는 금주조항을 채택했다. 그런데 다른 주의회에서도 알코올의 생산이나 소비가 별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제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정책을 개발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초에 연방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금주조항을 법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6. 인도인의 음주문화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동양국가들과 달리 인도는 근본적으로 알코올을 정상적



바나라시의 신상, 인도인의 음주는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인 사회적 대화나 식사자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종교에서나 의례에서 반드시 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인도에는 음주를 하는 정해진 형태나 방식, 음주에 대한 태도 등이 없다. 유교와 비교해 보면 아주 탄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인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음주는 있지만 인도인의 규범으로서의 음주문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종교의례에서나 사교적 자리나 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인도사회는 문화적 패턴과 이데올로기적 패턴이 다중적이다. 전통사회와 비전통적 사회가 공존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은 인도인이 술 마시는 패턴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전통적인 음주패턴을 일반인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된다. 바로 인도의 음주문화는 인도 원주민들의 음주패턴에서 살펴보아야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 인구의 88%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인도의 원주민들은 북동지방, 북중부지방, 남부의 도서지



고아지역에서 3일째 술과 마약을 하고 춤추는 외국인들

방에 산재해 살고 있다. 연방정부는 원주민을 위해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류사회로 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립 후 50년 동안이나 그러한 일을 해 왔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다고 보여진다.

원주민들은 알코올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고 신과 신성한 권력자에게 바쳐져야 한다고 여긴다. 본도족(Bondo)과 무리아족(Muria)의 사람들은 술이야말로 자신들을 살리고 먹이는 대지의 우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무리아인에게 술을 마시는 일은 중요한 의무이자 기쁨이다.

또한 인도의 원주민 사회에서는 알코올을 마술로부터 풀어주는 해독제로 생각한다. 알코올이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질병을 막아주기도 한다. 술은 권위가 있기도 했고, 신성한 것이기도 했다.

중부 인도 비샤까파트남 (Vishakapatnam)의 콘다도라 사람들 (Kodadoras)에게 술은 협상, 결혼의례 등 모든 중요한 일에 필요한 것이었다. 코야족 사람들(Koryas)도 결혼식을 할 때 팜열매로 만든 술인 토디(toddy)를 가지고 축복을 한다. 이혼, 재혼, 죽음 등에서도 마찬가

지이고 갈등해소, 각종 회의 등 사회적 연대를 도모할 때도 술을 마셨다.

인도 원주민들에게 술은 다른 지역과 다름 없이 분쟁을 해결하고, 우정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증거는 첸추족, 야나디스 프라단족, 곤드족, 빌족, 오라온족 등 여타원주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른바 인도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었다. 인도 원주민에 대한 자료에서 인도인도 습관성 음주벽이 있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 첸추족의 사내가 술을 탐닉하다가 술이 떨어졌을 때 딸을 팔아서 술을 마셨다는 자료가 있었다. 문제음주자는 세계 어디를 가던지 유사한 문제를 저지른다.

원주민 집단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증류주도 제조하고 마셔왔다. 인도에서 법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통상적인 술인 맥주나 와인은 알코올 농도가 3-5% 정도다. 그런데 북동부 지방에서는 70%나 되는 증류주를 만들어 마신다. 마다야 지방이나 오릿사 사람들은 6-10%정도의 술을 마신다. 그런데 인도인들의 술에는 많은 영양분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술에는 단백질, 칼

습, 비타민, 철분 등의 함유량이 제법 높다고 한다.

의식으로서 술을 마시는 음주패턴은 힌두교의 종파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탄트라(Tantric) 종파에서 음주나 여타 관능적 탐닉 행위가 허용되고 의식을 하는 도중에 실행된다. 샷티(Shakti) 종파는 여신들에게 술을 바치고,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도 마신다. 이들 힌두교도들은 음주를 좋아하고 무당들이 필요한 물질을 얻게 해주고 삶을 통제해 준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그들은 알코올을 신부나 의식 집행자들이 마법을 걸어서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물질로 이해하였다. 힌두교도 중에서 숫자는 적지만 자신들의 종파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계속 내려져 왔다.

독립 이후에 인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알코올음료의 음용가능성이 점점 커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적은바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인도의 음주문화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적은 지역에서 일부 인도인들이 술을 탐닉하고 자주 음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술은 즐기는 수단으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인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오히려 위험스런 측면이 있다. 술 마시는 이유는 빨리 취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으니 그렇다. 1970년대 중반에 음주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인도의 서부와 남부지방인 마하라스트라, 고아, 케랄라, 까르나타카에서 법적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되자 바(Bar)나 펍(Pub)이 생겨났다. 인도인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아지역에는 알코올과 마약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지역이 있다. 많은 유럽인들이 비



현대 인도인은 고단하다 고단한 인도인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술은 아닐까?

용을 들여 찾아가 몇날 몇일을 즐기고 오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한다. 아직 인도에 술집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음주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7. 인도인의 음주패턴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도인들의 음주패턴은 인도문화의 복잡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음주문화가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한다. 금주가 헌법에 있다고도 하고 각 지방에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도 한다. 어떤 힌두교도는 금주라고 하고, 또 어떤 힌두교도들은 아주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는 인도인들은 사는 지역, 지방과 도시의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 등에 따라 모두 음주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도인들의 음주에 대해 포괄적인 견해를 정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집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인도인의 음주행태를 일반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도 성별로 격차가 크다. 대학생들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음용자가 8배 이상이 된다. 남성은 21.7%이고 여성은 2.6%이다. 우리나라 남학생에 비하면 1/4정도도 안되는 비율이지만 인도의 인구를 감안해 본다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더욱이 그 비율이 우상향하는 선형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나이도 중요한 요인이다. 인도에서는 20세가 되면 음주량이 대폭 늘어난다. 그 이외에도 기숙사 여부, 출신지역, 사용 언어 등이 알코올 사용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 카스트, 가족구조, 1인당 소득 수준 등이 술 마시는 차이를 낳게 하는 원인들이므로 나타난다.

중요한 일로 힌두교도들이 술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제법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이나교, 불교, 이슬람교 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 친척, 경기, 소득, 술집 접근성, 지역의 음주행태 등이 음주선호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반 대중 보다는 산업노동자, 농업자, 원주민들의 술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마다 선호하는 술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만든 저에탄올 술은 원주민들이나 아쌌지방 사람들이 선호하였다.

도시거주자나 산업노동자들은 위스키, 브랜디, 기타 제조주 등인 공장에서 제조한 증류주를 좋아하였다. 도시에서의 음주는 서구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도농간 음주유형의 일원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현대 인도에서 알코올의 생산은 전국적으로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다. 그렇

지만 인도는 아직은 금주가 우선인 사회이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마신다. 그러므로 음주통계자료 결과는 실측치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잡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인도는 나름대로의 알코올소비패턴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내거는 기치는 우리나라나 일본, 태국 등과 같이 문화변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음주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산업에게 그러한 문화형성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정책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도는 주류산업의 천국이다. 워낙 광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자들도 젊은층, 힌두교도, 도시지역 증가하거나 증류주와 같은 고도주 선호하고 있다는 것, 일부지역으로부터 바나 펄을 중심으로 음주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 등 소비자들과 공급자 모두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정부도 세계화체제에서 과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의 음주문화도 크게 변화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8. 급변하고 있는 인도의 음주문화

인도에서도 음주문화는 학습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음주상황에 노출되는 것, 음주에 대한 인지, 지식, 음주에 대한 의견, 신념, 태도, 가족제도, 동료집단, 직장 등이 인도인의 음주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부류가 청소년과 청년층이다. 친형, 친척, 동료 학생, 동료 노동자 등이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하다. 소위 도래 압력 모델과 역할모델이 인도에서도 유효하다.

인도에서도 어린이들이 최초로 사회화 되는

단위로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나 친형의 음주는 어린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가족구성원의 음주나 흡연은 학생의 알코올 음용패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에서도 술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1차적인 것이 또래들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축제나 댄스파티에 가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기숙사, 휴게실, 친구의 집 등에서 친구와 사귀게 된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젊은 층들은 쉽게 술을 마시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작업문화도 직장인 음주를 부추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작업의 성격, 동료직원의 압력, 노동조합과 관리자들이 음주의 자리로 유도한다. 음주는 인도의 직장인들에게도 피로를 회복시키는 상징물이다. 이러한 음주문제는 일반적인 일로 도농 할 것 없이 변모해 가고 있다.

일부 카스트와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의식이나 축제에서의 알코올은 삶의 방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카스트에 속해있는가의 처지가 음주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나 여타 사회집단에서 알코올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주정부에서 알코올의 음용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9. 인도에서 벌어지는 음주 찬반논쟁

인도인들의 음주량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나 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건강, 범죄, 사회생활의 붕괴, 교통사고의 증가, 과음, 자살 등의 통계 증가 등이다. 물론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었다.

음주는 도시의 교육받은 사람들, 지방의 부



현대의 인도인은 이제 바쁘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유한 층, 늘어나기 시작하는 중산층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류주의 소비가 매우 증가하였다.

인도에서는 산업화가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농업국가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인구 40%의 생활수준은 생계유지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의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정에서 술을 빚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하여 자가 소비하는 알코올 농도는 4-5%수준이다. 농촌지역에서 제작한 술은 영양분의 섭취, 여가와 연회 등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하여 쓰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코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에서 벗어난 농부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은 술 소비량을 늘리고 있다. 인도인들은 소득이 늘어나자 새로운 일을 찾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대신에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제 인도인들은 집에서 만든 술도 마시고 공장에서 만든 술도 사마시게 된 것이다. 인도인들의 주량은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2배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인도의 자료를 보고 현상을 이해하려면 인도식 계산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편잡주에서는 농업 신기술의 도입, 생산방법의 개선, 종의 품질개선, 녹색혁명을 추진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다. 편잡주는 인도의 곡창이 되었고 인도에서 가장 부자주가 되었다. 그러자 편잡주의 가정에서 술을 더 만들었고 자산은 늘리지 않았다. 더욱이 전통적인 가치시스템이 붕괴하였다. 그리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술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편잡주의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의 증가와 인도산 양주, 지역의 전통주, 가정에서 제조한 불법증류주 등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같은 방

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인다. 지난 20년 전과는 차이가 큰 변화를 보였지만 인도에서 발전의 꽃은 술 소비량 증가로 피운 듯 하다.

이제 인도가 과거와 같이 절주하는 모습, 엄격한 규범이 있는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음주문제를 어찌 해야 할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적 규범적 대책은 가지고 있다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인도, 그러면서도 변화가 무척이나 빠른 인도, 청소년, 여성, 산업노동자 등 고위험군이 급속히 늘고 있으나 아직 대책은 미흡한 나라 인도에서 과연 팽창하는 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The real meaning of travel, like that of a conversation by the fireside, is the discovery of oneself through contact with other people, and its condition is self-commitment in the dialogue.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모닥불 옆에서 나누는 대화의 의미처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의 조건은 그 대화에 몰두하는 것이다

- Paul Tournier -

唐詩감상 / 孟浩然的 詩

친구의 시골집을 지나며

옛친구는 닭과 기장 준비하고

나를 청하기에 나는 그 집에 갔다.

파란 나무들은 마을가에 둘러 있고

퍼런 산은 밭재 밖에 비껴 있다.

창문을 열고 채마밭을 바라보고

술잔 들면서 뽕, 삼 농사 이야기다.

구월 구일 가을철 기다렸다가

그때는 다시 와서 국화 앞으로 가자.

過故人莊

故人具雞黍
邀我至田家
綠樹村邊合
青山郭外斜
開筵面場圃
把酒話桑麻
待到重陽日
還來就菊花